

중동 주요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·중동 협력 확대방안

이권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
아프리카중동팀 연구위원
khlee@kiep.go.kr

손성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
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
shson@kiep.go.kr

장윤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
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
yhjang@kiep.go.kr

유광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
아프리카중동팀 연구원
khryou@kiep.go.kr



1. 연구의 배경 및 목적

- **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육성은 중동 국가들의 경제다각화 정책에서 핵심적인 부분임.**
 - 중동 국가들은 석유 및 가스 부문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고 제조업, IT, 물류, 금융 등 다양한 부문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경제다각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.
 - 산유국의 경우 대규모 국영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석유·가스 부문이나 정유, 석유화학 등과 같은 업종은 추가적인 고용을 창출하는 데 사실상 한계가 있으며, 민영화를 통해 민간 부문을 확대하는 정책도 단기적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운 과제임.
 - 따라서 중동 각국의 정부들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조직을 재편하고 있으며,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.
- **더불어 중소기업 육성은 우리나라 현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이기도 함.**
 - 현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과거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성장환경을 구축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임.
 - 2017년 7월 우리나라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및 벤처 육성을 위한 정책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**이와 같이 중소기업 육성은 우리나라와 중동 국가 모두의 공통된 정책과제로서 양국간 경제협력 차원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음.**
 -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도 여전히 효과적인 진출전략이지만, 중소기업 주도의 진출전략도 진지하게 모색될 필요가 있음.
 - 중동 국가들은 한국 제품의 단순 수출이 아니라 한국 기업의 기술이전과 자본이 결합된 투자진출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·중동 중소기업 간 합작투자 법인 설립이나 M&A 등 전략적 제휴를 통해 다양한 협력 모델을 연구해볼 수 있음.
- **본 연구는 중동지역 중소기업의 특징과 경영환경, 중동 주요국의 중소기업 육성전략 및 지원정책,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진출 동향 및 애로요인을 분석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진출 확대를 위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과 효과적인 지원방안 및 한·중동 중소기업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함.**
 - 본 연구는 2010년대 이후 중동 국가들의 경제정책 변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, 이를 기반으로

- ‘중소기업 협력’이라는 새로운 한·중동 경제협력 의제를 발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.
-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 역량을 강화하고 중동 지역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중소기업 주도의 혁신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임.

2. 조사 및 분석 결과

1) 중동지역 중소기업 육성 배경 및 특징과 경영환경 분석

① 중소기업 육성 배경

- 중동 산유국들은 천연자원 의존적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경제다각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.
 - 산유국들은 GDP 중 석유 관련 산업의 비중이 높고 석유 및 가스가 재정수입 및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.
 - 산유국들은 불안정한 국제유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할 수 있도록 비석유 부문을 발전시키고 민간 부문을 육성하고자 함.
 -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(inclusive growth)이 주목받는 가운데 중소기업은 이를 위한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으며, 중동 산유국도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강화하고 있음.
- 많은 중동 국가들이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높은 실업률이 주요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음.
 - 중동 대부분의 국가에서 청년층과 여성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높음.
 -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동 국가들은 공공 부문에 자국민을 대규모로 고용해왔음.
 - 그러나 중동 국가들이 공공 부문 고용 확충을 통해 자국민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발전을 이루는 데 한계에 달하면서 민간 부문, 특히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중소기업 육성에 집중하게 되었음.
- 4차 산업혁명의 촉발이 산업구조, 직업, 생활방식 등 경제 및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일으키는 가운데 중동 국가들도 지식 기반 경제성장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.
 - 천연자원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려는 GCC 국가들뿐만 아니라 비산유국들도 경제개발계획이나 산업 정책 등을 통해 지식 기반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을 발표함.
 - 중소기업의 유연성과 혁신역량, 고용 창출 가능성은 중동 국가들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.

- 중소기업 육성은 지식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각국이 발표한 계획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된 부문으로, 특히 다수 국가의 개발계획에서 스타트업 지원정책이 강조되고 있음.

② 중동지역 중소기업 현황 및 특징

● 각국 중소기업의 정의가 다르고 경제 규모 및 구조, 발전 정도, 중소기업 현황도 상이함에 따라 중소기업 현황도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음.

- 주로 직원 수, 매출액 규모, 자산 규모 등이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며,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초소형기업(Micro enterprise), 소기업(Small enterprise), 중기업(Medium enterprise)으로 세분화할 수 있음.
- 초소형기업의 경우 다수 국가에서 직원 수 5~10명 미만인 기업이 포함됨.
- 사우디아라비아, UAE, 바레인, 튀니지의 소기업 최대 직원 수는 19~100명, 중기업 직원 수는 49~250명으로 국가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남.

● 중소기업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GDP 성장, 민간 부문 고용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음.

- 중동지역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80~90%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됨.
- 국가별 중소기업의 GDP 기여도는 이집트가 80%, UAE가 60%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, 바레인이 28%, 사우디아라비아가 22%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.
- 중소기업은 고용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, GCC 국가 중에서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소기업 고용 비중이 70%대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음.

●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소기업 수는 2017년 기준 약 95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이 중 직원 수 5명 이하의 초소형기업이 88.0%를 차지함.

-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및 차량 정비업 업체가 45만 2,932개로 전체 기업 중 47.7%를 차지함.
- 특히 초소형기업과 소기업에서 도소매업 및 차량 정비업 비중이 각각 50.0%, 32.0%로 높게 나타났으며, 중기업에서는 제조업이 23.5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.
- 사우디아라비아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의 70% 이상을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, 중소기업 고용 중 외국인 비중이 78.6%로 자국민보다는 외국인 중심으로 고용이 이루어짐.

● UAE는 두바이와 아부다비가 개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중소기업 구성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.

- 두바이는 2012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5%를 차지하고 있었으며, 아부다비도 전체 기업의 약 95%(2013년 기준)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남.
- 세부적으로는 초소형기업이 두바이와 아부다비에서 각각 72%, 48%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.

- 전체 고용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두바이가 42%에 달했으며, 아부다비는 24%로 두바이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.
- 이집트는 2017년 기준으로 10명 미만의 초소형기업이 이집트 전체 기업의 약 91%를 차지함.
 - 2014년 발표된 국제금융공사(IFC)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업종별 구성에서 제조업이 51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.
 - 이집트가 사우디아라비아, UAE 등 산유국보다 상대적으로 제조업 기반을 더 잘 갖추고 있어 중소기업 중 제조업의 비중이 높았음.
 - 그러나 이집트에서 대기업이 전체 제조업 생산의 87%, 고용의 53%를 담당하는 등 제조업 부문에서 대기업의 역할이 지배적이었음.
- 중소기업의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한 중동 국가들이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를 늘리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2010년대 이후 스타트업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.
 - 중동지역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기술 기반 스타트업 투자 관련 조사에 따르면 투자 건수는 최근 5년간(2013~17년) 지속적으로 증가함.
 - 투자 규모는 2015년 2억 6,800만 달러에서 2016년 9억 3,100만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한 이후 2017년에 6억 5,100만 달러를 기록함.
 - 국가별로 살펴보면 UAE가 투자 규모와 건수 모두 가장 높았으며, 지역 내 스타트업 부문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- 산업별로는 헬스테크(healthtech), 바이오테크(biotech), 오토테크(autotech) 등 고도의 기술 중심 산업에 세계 스타트업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추세가 중동지역에도 반영되고 있음.

③ 중소기업 경영환경

- 중동지역 국가들의 중소기업 육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기업환경은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평가됨.
 - 국제금융공사(IFC)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중동지역 중소기업 중 약 63%가 금융접근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지역 내 총자금조달 격차(financing gap)는 2,100억~2,4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.
 -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이 낮은 데는 신용정보 관리 시스템 등 금융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여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됨.
 - 파산법 등 기업 활동 관련 제도가 미비한 점도 문제로 꼽힘.

- 국가별 기업 경영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기업환경평가(Ease of Doing Business), 글로벌경쟁력 지수(Global Competitiveness Index), 글로벌혁신지수(Global Innovation Index) 등의 결과는 중동 지역의 현황을 더욱 세부적으로 보여주고 있음.
 - 기업의 사업 수행 용이성을 측정할 수 있는 기업환경평가 2017년 발표 결과에 따르면 중동지역 국가의 평균 순위는 190개 국가 중 115위를 기록하였으며, 항목별 순위에서 금융접근성 부문의 평균 순위가 130위로 가장 낮았음.
 - 각국의 제도, 인프라, 거시경제, 시장 규모 등 경영환경 측면을 비롯해 교육 및 훈련, 기술적 준비 정도, 사업고도화 정도, 혁신 등을 평가하는 글로벌경쟁력지수의 2018년 결과에 따르면 중동지역은 비즈니스 역동성(business dynamism), 노동시장 효율성(labour market efficiency) 등의 항목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.
 - 국가별 혁신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인 글로벌혁신지수의 2018년 결과에 따르면 중동지역 다수 국가의 순위가 하락하였으며, 쿠웨이트를 제외한 GCC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혁신효율성이 낮은 특징을 보임.
 - 중동지역 스타트업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도시별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도 전반적으로 낮았음.

2) 주요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

① 중소기업 육성전략

- 사우디아라비아, UAE, 이집트, 튀니지(이하 중동 주요 4개국)는 국가개발 계획 수립, 중소기업지원법 제정, 전담기관 설립 등을 통해 각국의 중소기업 육성 관련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하고 있음.
 -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‘사우디 비전 2030(Saudi Vision 2030)’과 ‘국가 변혁 프로그램 2020(National Transformation Program 2020)’에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비전 및 세부 계획을 제시하고 정책 집행을 위해 중소기업청(SMEA: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General Authority)을 설립함.
 - UAE는 중소기업의 GDP 기여도를 2015년 60%에서 2021년 70%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 등을 규정한 「중소기업지원법」을 도입함.
 - 이집트는 2016년 ‘산업 및 무역 개발전략 2016~2020(Industry and Trade Development Strategy 2016~2020)’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 6대 전략을 수립하였으며, 2017년에는 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개발청(MSMEDA: The Micro, Small, and Medium Enterprise Development Authority)을 설립함.
 - 튀니지는 2017년 기존 산업을 산업중소기업부로 확대 개편하고 2018년에는 국내 창업환경의 개선 및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을 도입함.

② 주요 지원 정책 및 제도

- **중동 주요 4개국은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확대를 위해 공적 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.**
 -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 지원은 주로 사우디산업개발펀드를 통해 이루어지는데, 일반금융에서 받기 어려운 장기자금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규모가 작을 경우 무담보로도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기관의 장점임.
 - UAE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기관인 칼리파 펀드는 자국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 및 특징, 대출 시급성 등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.
 - 이집트는 2017년 4월 설립된 중소기업개발청을 통해 서비스업 부문 중소기업에는 최대 300만 파운드(약 17만 달러),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에는 최대 500만 파운드(약 28만 달러)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있음.
 - 튀니지도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확대를 위해 신용보증공사, 국영중소기업은행, 기업은행 등의 공적 금융기관을 활용하고 있음.
- **중동 주요 4개국은 기술인큐베이터 설립, 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,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음.**
 -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의 특징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특정 산업 및 기술을 선정하고 있다는 것인데, 대표적인 예로 ICT, 바이오, 첨단 제조 부문의 기술인큐베이터를 설립·운영하는 ‘바디르(Badir) 프로그램’이 있음.
 - UAE는 중소기업 자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기술 아이디어 공모전, 기술 사업화 지원 등 기술창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, 2014년 국가혁신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최근에는 기술혁신 관련 정부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.
 - 이집트는 정부 주도하에 기술혁신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나, 지원 규모가 크지 않을뿐더러 기관간 협업 부재 등으로 관련 정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.
 - 튀니지는 총 11개의 ‘테크노 파크(Techno Parks)’와 15개의 ‘사이버 파크(Cyber Parks)’를 운영하는 등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산학 연계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.
- **더불어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확대, 정부수수료 면제, 기업 설립절차 간소화 등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음.**
 - 사우디아라비아 중소기업청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창업한 기업에 대해 각종 정부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.
 - UAE도 칼리파 펀드에 등록된 스타트업에 상업등기비, 라이선스 취득비 등 각종 정부 수수료

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.

- 이집트 정부는 투자법 개정을 통한 스타트업 혜택 강화, 원스톱숍(One Stop Shop) 및 온라인 등록서비스 이용지역 확대 등을 통해 창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음.
- 튀니지는 원스톱숍 확장 사업과 함께 산업혁신청을 통해 18대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이 부문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.

③ 외국기관 지원 및 정부 간 협력 사례

● 유럽연합(EU: European Union)의 중동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방법으로는 금융협력 강화, 경영 자문서비스 제공, 관련 세미나 개최 및 연구 추진 등이 있는데, 2010년대 들어 지원방법이 다양해지고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.

- 유럽부흥개발은행(EBRD: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)은 중동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2012년부터 총 24건의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금융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음.
- 아울러 유럽부흥개발은행은 ‘남동지중해 국가들의 중소기업 지원사업(Small Business Support Activities in the Southern and Eastern Mediterranean Countries)’을 통해 중동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.
- EU는 ‘남지중해 경영환경 개선사업(Enhancement of the Business Environment in the Southern Mediterranean)’이라는 이름으로 현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 및 관련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음.
- 또한 아프리카 및 EU 주변 국가들의 투자 촉진을 위해 대출 보증 및 사업기획 단계에서의 기술 지원 등을 현지 투자 기업에 제공하는 ‘EU 대외투자계획’을 실행하고 있음.

● 이밖에도 캐나다, 독일, 일본 등이 중동지역 국가들과의 중소기업 부문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.

- 이집트와 캐나다의 중소기업 부문 협력은 중소기업 관련 정부 기관의 역량 강화, 중소기업 고용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음.
- 튀니지와 독일은 ‘독일과의 파트너십 구축 프로그램’ 등을 통해 튀니지 내 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음.
- UAE와 일본은 2017년 양국 중소기업의 협력 촉진을 위해 ‘UAE-일본 중소기업 플랫폼’을 두바이에 설립하였으며, 2018년에는 포럼, 세미나 등의 중소기업 관련 행사를 세 차례에 걸쳐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음.

3) 국내 중소기업의 중동 진출 환경 및 애로요인 분석

① 국내 중소기업의 중동 진출 동향

- 중동은 우리나라의 4대 중소기업 수출 대상 및 지역별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지역으로, 최근 대기업보다 수출 증가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왔음.
 - 중동은 국내 중소기업의 4대 수출 대상 지역(전체 중소기업 수출의 6.4%)으로, 신흥국 중에서는 아시아 다음으로 수출 비중이 높게 나타남.
 - 또한 중동은 지난 5년(2013~17년) 누적액 기준 지역별 수출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22.5%로 가장 큰 지역임.
 - 국제유가가 하락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수출 연평균 증가율은 -5.8%로 대기업(-9.4%)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 폭을 보였음.

- 중소기업의 대중동 해외직접투자는 아직 활발하지 않으며, 주로 사우디아라비아, UAE 등에서 건설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.
 - 우리나라의 총해외직접투자에서 대중동 투자는 아프리카 다음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으며, 저유가 기조로 최근까지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.
 - 우리나라의 총해외직접투자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(2017년 기준 17.1%) 자체는 높지 않으나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, 대중동 투자 중 중소기업 비중은 2017년 기준 2.4%로 낮고, 최근 감소하고 있음.
 -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투자에서 국가 기준으로는 UAE(32.8%)와 사우디아라비아(24.9%), 업종 기준으로는 건설업(37.3%)과 부동산 및 임대업(32.3%) 비중이 높았음.

- 중동 산유국에서 건축 및 용역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내 중소 건설사의 대중동 해외건설 수주 규모는 크지 않으며, 뚜렷한 증가세도 보이지 못하고 있음.
 - 국내기업의 중동지역 해외건설 수주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(2013~17년 누계 기준)은 0.5%로 미미함.
 - 2015년 이후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규모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동에서는 2017년 오히려 감소하였음.
 - 국내 중소기업은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중동에서도 투자단위가 크지 않은 건축(33.2%) 및 용역(31.2%) 등의 소규모 사업에 주로 참여하고 있음.

② 한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제도 및 한·중동 정부 간 중소기업 협력

●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지원사업 수 및 예산 규모는 크지 않았으며, 이마저도 수출 진흥과 관련된 정책이 대부분을 차지함.

- 중소기업 해외진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출 부문 예산은 6,317억 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지원 예산(2017년 기준 16조 6,000억 원)의 3.8%에 불과함.
- 중소기업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 수출지원사업 규모는 총 1,784억 원으로 15,000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함.
-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지원사업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할당된 사업은 수출성공 패키지 총 499억 원이 배정되었고, 이는 2,100개 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임.
- 최근 우리 정부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에서 신시장 수출 확대 관련 지원사업, 수요자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정책, 해외거점사업 등이 강조되고 있음.

● 한·중동 중소기업 협력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양자간 교역 확대 이외에 공동 R&D, 기술협력, 금융 지원, 인적 교류, 정책 공유 등의 부문으로 다각화되었고, 최근에는 기술 이전 및 합작 투자 등을 기반으로 한 협력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음.

- 2015년 이후 체결된 대중동 중소기업 협력 관련 양해각서 또는 협약서 13건을 국가별로 살펴보면,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GCC 국가들과 체결한 것이 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.
- 한·중동 중소기업 협력 관련 주요 협정 내용에는 공동 R&D, 기술협력, 금융지원, 현지 인력의 연수 기회 제공, 정책 공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음.
- 최근에는 기술 이전 및 합작 투자 등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.
-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양자간 협정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발전된 사례는 많지 않아 향후 실제로 협력 모델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.

③ 중동 진출 애로요인과 정책 지원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

● 중동지역의 사업환경과 국내 기업의 진출 애로요인,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중동지역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음.

- 설문조사 대상은 중동 진출 또는 수출 경험이 있는 259개 기업이며, 이 중 30개 기업이 회신하여 11.6%의 응답률을 보였음.
- 설문조사 기간은 2018년 6월부터 10월까지로 약 5개월이며, 구글의 온라인 설문조사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음.

- 설문에는 진출 국가, 기업 규모, 업종 등 중동 진출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과 해당 기업이 생각하는 중동지역의 사업 환경과 진출 애로요인,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 요청 사항에 대한 질문을 담았음.
- **중동에 진출한 기업은 해당 지역이 다른 신흥시장에 비해 사업환경이 좋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고, 중동 고유의 제도 및 이에 대한 정보 부족을 주요 애로요인으로 꼽았음.**
 - 응답 기업 중 중동의 사업환경이 다른 신흥국보다 좋지 않다는 의견이 절반(53.3%)을 넘었으며, 주로 행정 처리(21.4%)와 규제(16.7%)가 가장 열악한 부문으로 지목되었음.
 - 전 세계 해외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해외 구매선 및 바이어 발굴 역량 부족(23.6%)과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(16.3%)을 주요 애로요인으로 선택한 기업의 비중이 높았으나 중동에서는 현지 법규 및 상관행 등에 대한 이해 부족(31.0%), 현지 제휴 및 합작투자 파트너 발굴 곤란(15.5%)을 지목한 기업의 비중이 높았음.
 - 이는 우리 기업이 중동에서 스폰서 제도, 자국민 의무고용 제도, 이질적인 상거래 관행 등 현지 고유의 사업 환경 및 제도적 차이,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.
 - 중동에서 사업과 관련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 응답 기업의 16.7%만이 우리 정부에 지원을 요청 하였으며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(70.0%)하거나 현지 법무법인, 컨설팅 회사 등을 활용(13.3%) 하는 비중이 높았음.
- **중동 진출기업은 우리 정부의 지원 정책을 잘 알지 못했고 만족도 또한 낮았으며, 향후 금융지원 확대, 현지 경영 및 제도 환경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의 지원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음.**
 - 응답 기업의 50.0%가 우리나라의 해외 진출기업 지원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20.0%만이 지원정책을 활용한 경험이 있었으며, 해당 기업 중 '만족한다'를 선택한 기업은 16.7%에 불과했음.
 - 우리 정부의 해외 진출 정책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주로 복잡한 지원 절차 및 요건 (23.3%),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정책(23.3%)을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였음.
 - 응답 기업의 38.4%가 중동 진출 시 금융 지원이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판단하였으며, 중동에 진출한 국내기업과의 간담회 및 UAE 출장을 통한 진출기업 면담에서도 금융 지원 절차 및 요건 완화, 지원금액 증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음.
 - UAE를 포함한 중동 진출기업들은 현지의 사업환경, 제도, 각종 법규, 드러나지 않은 관행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어 설문 응답기업 중 현지 투자여건(16.7%), 해외시장(11.7%)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련된 지원 확대를 요청한 기업의 비중도 높았음.
 - 특히 현지 진출기업들은 앞에서 언급한 스폰서 제도, 자국민 의무고용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가장 필요로 하고 있었음.

3. 정책 제언

1) 기본 지원 방향

-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한국과 중동지역 간 정책 요인에 주목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함.
 - 중동 국가들이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차원에서 직접투자와 기술이전을 요구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동 진출형태도 합작투자(joint venture) 또는 M&A 등을 통한 현지 법인 설립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, 이를 위해서는 진출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.
 -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중동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현지 투자여건, 시장환경 등 맞춤형 정보가 필요함.
 - 정부 주도로 한·중동 기업 간 접촉기회를 확대하여 서로 다른 경제환경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한편 중소기업이 가진 애로요인을 파악하고 해소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되어야 함.

2) 금융지원시스템 확충

- 국내기업의 대중동 투자 비중은 연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 세계 대비 2% 전후를 나타내고 있음.
 - 이는 한·중동 간 교역 비중이나 중동지역에서의 해외건설 수주 비중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임.
 - 대중동 투자가 저조한 것은 여러 요인을 찾아볼 수 있겠으나 기업의 금융 조달 역량이 부족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음.
 -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금융 조달 관련 전문인력이나 활용 가능한 금융 네트워크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투자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함.
-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방안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음.
 - 하나는 중동 진출을 시작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으로, 예를 들어 중동시장 진출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타당성 조사 또는 특정 부문의 시장조사에 관련된 비용이나 진출 초기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.
 - 다른 하나는 한국과 투자대상국 중소기업 간 합작투자 또는 M&A가 이루어질 경우 양국의 중소기업이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저리의 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.
 - 이를 위해서는 양국의 정책 담당자 및 금융기관 간 협의를 통해 투자 지원 결정 및 집행이 이루어지는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.
 - 투자가 이루어진 뒤에는 물류 등 여건이 양호한 산업단지에 입주하거나 공공 조달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도 고려할 수 있음.

3) 정보공유시스템 체계화

- 중동국가들은 우리나라와 상이한 경제 및 시장 구조와 특성을 갖고 있으며, 금융, 투자, 노사 관계 등 부문별로 서로 다른 제도와 법률을 운영하고 있음.
 - 이러한 환경은 중동지역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기업에는 상당한 비용과 리스크로 작용할 것임.
 - 설문조사에서도 정보 제공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, 많은 기업이 정보의 부족을 호소하는 것은 특정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보 및 심도 있는 분석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임.
- 이를 위해서는 시장 및 투자 정보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역연구 확대 및 정보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할 것임.
 - 또한 4장의 현지 기업 인터뷰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중동 진출기업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 스폰서 제도에 대해서도 특정 스폰서에 대한 평판, 스폰서와의 분쟁사례 등이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공유된다면 현지 진출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임.
- 현지에 이미 진출한 기업들은 현지 대사관 및 지원기관 등과 협업하여 건설, 보건, 물류, ICT 등 부문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업간 투자 여건 및 정보, 분쟁사례 등을 공유할 수 있을 것임.
 - 현지 진출기업들은 서로 잠재적인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정보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현지 대사관 및 지원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심점 역할을 해서 정보공유를 유도하고 기업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.

4) 정부간 협력사업 확대

- 정부간 협력사업은 정부 차원의 협력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인적 교류사업과 제도 개선사업으로 구분해볼 수 있음.
- 인적교류사업은 다양한 차원에서의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육성 관련 경험 및 지식을 공유하는 한편 양국간 상호 이해를 심화시켜 지속적인 협력사업의 토대를 만드는 것임.
 - 인적 교류사업으로 경영자문서서비스 제공, 신기술 관련 세미나 개최, 공동 R&D 네트워크 구축, 기업가정신(entrepreneurship) 및 역량 강화 교육 확대, 창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.
 - 또한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발전경험이 다른 나라에 비해 성공적인 만큼 중동 각국의 중소기업 정책담당자를 초청하여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제도를 공유할 수 있을 것임.

- 이와 함께 상대국의 투자 유치 기관 및 유망 중소기업을 초청하여 국내 중소기업과 직접 투자기회를 논의하고 자국의 산업다각화에 필요한 기술과 해당 기술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.

● 제도개선사업은 경제협력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애로요인을 해소함으로써 협력 파트너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.

- 중소기업은 상대국 기업의 계약조건 미준수, 불공정거래, 불합리한 규정, 규정의 차별적 적용 등 다양한 어려움을 충분히 호소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인적 자원 관리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마땅한 소통창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.
- 정부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먼저 능동적으로 기업의 애로요인을 찾아내고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, 이는 상대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양국간 고위급 및 실무급 경험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기업의 애로요인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.
- 또한 기업간 분쟁 발생 시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양국간 협력채널(가칭: 분쟁조정위원회)을 설치하여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임. **KIEP**